

# 1부 예배

◆ 목 도 ..... 다 같 이

◆ 찬 송 .....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 다 같 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 성 경 봉 독 ..... 빌립보서 4장 19절 ..... 인 도 자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 말 씀 선 포 ..... 채우시는 하나님 ..... 인 도 자  
 낭 독

◆ 기 도 .....

◆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믿음의 영웅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였을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증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번 설 명절과 2025년에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첫째,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즉 “내가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기를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려지고,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모든 것을 행할 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담대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 셋째,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 주실까요?

물질을 채워 주십니다. 건강을 채워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채워 주십니다. 진로가 열어지는 복을 채워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강력한 믿음을 채워 주십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내려가 친척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밥그릇은 얼마나 큰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밥그릇의 2~3배 정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도 산처럼 쌓아서 주십니다.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숙모께서 '벌써 다 먹었구나.' 하시면서 다시 그만큼 한 그릇을 더 채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 이거 어떻게 먹지?'하고 힘들어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실까? 왜 이렇게 채우실까? 지금 돌아켜 보니,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채워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2부 예배

◆ 축복의 찬양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다 같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 축복해주기 ..... 서로 서로

◆ 기도제목 나누기 ..... 서로 서로

